

# 벤처기업의 보배는 바로 “직원”

이종근 (주)이소프팅/대표이사

---

**기**업은 보통 일부 제품이나 사람이 전체를 먹여 살리며, 실적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내부적으로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직원들을 잘 융화시켜 나가는 것은 어렵다.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부여된 일만을 하는 수동적인 경우가 많다. 잘하든 못하든 이들을 융화하고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백업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기자기한 경영의 묘미이다.

벤처기업에서 직원이 가장 큰 보배이며, 이들이 만들어 놓은 열매가 수확되면 이를 잘 포장해서 파는 것이 바로 경영자가 할 일이다. 직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CEO의 몫이다.

투자자가 자리를 마련하고 천막을 쳐주었으면 기업은

재능을 발휘해 손님을 모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익을 발생시켜 이를 투자자에게 환원시키는 기업과 투자자의 관계는 마치 서커스단과 단원의 관계와 같다. 이익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다시금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CEO의 역할이다.

기업은 슈퍼맨 같은 다재 다능한 인재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만능은 아니더라도 다방면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인재다.

특히 벤처기업에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대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기가 어렵고 특정 분야 전문적인 일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면 벤처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요즘 비교적 규모 있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기업보다는 작지만 내실 있는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자기계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모아 식수를 이용하기 위해선 저수지가 필요한 것처럼 평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